"오늘을 기다렸다"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이 열린 24일 오후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각 팀 선수들이 스타트 그리드에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6만 관중몰이 성공, 대회진행은 엉성

지방도시서 열린 매머드급 축제…국제 이미지 업

공짜 티켓으로 자리다툼 촌극…수익은 '속빈강정'

갈팡질팡 첫 대회 이미지 벗고 내년 대회 기대를…

F1코리아 분야별 결산

스피드 축제는 끝났지만 숙제는 산더미처럼 쌓였다.

대회 개최를 10여일 앞두고도 경주장이 준공되지 못하면서 국내외에서 개최 여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라는 호기심과 다양한 부대행사 덕분에 16만명이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관람객을 동원하며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다.

아쉬운 대목도 적지 않다. 대회 개최 때까지 경주장을 완공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준비 과정을 비롯해 '공짜 입장권'으로 인한 잡음, 열악한 편의시설과 교통 대란 속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등 운영상의 미숙함은 국제적 이벤트의 위상에 걸맞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세계화=사상 처음으로 국내에서, 그것도 지방도시인 영암에서 메머드급 스포츠 이벤트인 F1 대회를 개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남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향후 국내의 모터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국제적인 모터 스포츠산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전남이 F1 경주장 주변을 중심으로 모터스포츠 복합레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이번 대회 개최를 통해 한층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객 16만명, 수익은 '글쎄'=F1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보기 위해 경주장을 찾은 관람객이 16만3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22일 2만명, 23일 6만3000명에 이어 결승전이 열린 24일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무려 8만명이 경주장을 찾아 24명의 레이서들이 펼친 폭풍 질주를 지켜봤다는 것이다.

조직위가 애초 12만석 중 7만명이 결승전을 관람할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성공한 셈이다. 특히 고가의 티켓값에다, 경주장이 제 때 완공되지 못하면서 홍보에도 차질이 빚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과'라는 게 조직위 자평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도 거세다. 우선, 상업성을 추구하는 대회인 만큼 티켓판매량, 스폰서십 유치 등으로 수익성을 창출해야 하지만 기대한만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타이틀 스폰서는 커녕, 메인그랜드스탠드 위에 마련된 스카이박스 판매도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경주장 서킷을 둘러싼 벽에 붙은 광고는 손에 꼽을 정도다. 티켓도 공짜표와 자유이용권이 수만장 뿌려졌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운영상의 미숙함=첫 대회지만 운영상의 미숙함은 관람객들을 짜증나게 했고 결국 대회 이미지를 흐리는데 한몫했다.

조직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홍보부족으로 인해 경주장이 썰렁할 것을 우려, '교통대란이라도 빚어졌으면 좋겠다'는 우스개소리가 많았다. 이 때문인지 실제 교통대란이 빚어지자 우왕좌왕했다. 교통을 통제하면서 셔틀버스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아이를 업은 주부와 고령의 노인들이 5㎞가 넘는 거리를 무작정 걷는가 하면, 자유이용권 수만장을 배포하면서 실제 비싼 값을 주고 산 고객들과 자리다툼을 벌이게 하는 '촌극'이 빚어지게 만들었다.

결승전 당일 비가 내리면서 주차장이 흙탕물로 뒤덮이고 스탠드로 진입하는 길도 진흙탕이 됐지만 대책은 없었다. '기간 내 경주장을 완공하겠다'는 약속도 결국 못 지키면서 일부 스탠드는 관람객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빚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F1 이모저모

강진청자 디자인 우승 트로피…김밥집은 특수

○…F1 코리아 그랑프리 우승자에게 주는 트로피가 24일 오전 공개됐다. 이 트로피는 각종 보석류 및 트로피 전문 제작업체인 영국의 폭스 실버에 제작을 의뢰해 만든 것으로 고려청자가 유명한 강진의 고려청자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만들었다.

코리아 그랑프리 운영법인 KAVO는 "고려청자 디자인을 폭스 실버에 보내 참고하도록 했다. 대회가 열리는 영암과 가까운 강진의 고려청자의 멋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손잡이에 목재가 들어간 것 역시 자연경관이 수려한 전남의 지역적 특색을 잘 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목포시내 편의점과 김밥집에는 이른 아침부터 결승전 관람을 위해 비옷과 간식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목포 남악과 하당신도심 등 아파트 밀집지역 편의점에는 비옷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나 준비된 물량이 모두 팔려나가 대다수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또 김밥집 등지에도 교통정체를 피해 오전부터 경주장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도시락을 사기 위해 평소와 달리 긴 줄을 서는 모습을 연출했다.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관광청 장관인 히로시 미조하타씨가 첫 한국 F1대회의 성공을 축하하는 내용의 전문을 24일 보내와 눈길을 끌었다. 미조하타 장관은 '한국F1대회의 개최에 즈음해'란 제목의 서신문에서 "한국의 첫 F1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스포츠는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도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조하타 장관은 "한국에서도 F1대회가 앞으로 스포츠 관광의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F1대회를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도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F1 찾은 VIP

'비즈니스 창구' 된 영암…정재계 거물 총출동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가 열린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는 300명이 넘는 국내외 경제계 거물급 인사들이 찾아 '비즈니스의 창구'역할을 톡톡히 했다.

24일 F1 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F1 R경주장 내 VIP 공간인 '패독(Paddock) 클럽'을 찾은 국내외 인사가 350명에 이른다. KAVO측은 여기에 메인그랜드스탠드 기업박스 등에서 경주를 지켜본 VIP도 많아 모두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우선, 정치권 인사로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경주장을 찾았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이낙연 사무총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등도 영암서킷을 찾았다.

주한 외교사절도 총출동, F1 경주를 즐기면서 국가간 경제 현안이나 기업간 투자·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업인들도 줄을 이었다. 장 마리 위르띠제 르노삼성 대표이사를 비롯 러시아·태국 등지에서 내로라하는 거물급 최고경영자들이 영암에 모습을 나타내 쟝 토드 국제자동차연맹(FIA) 회장, 버니 에클레스톤 F1 매지니먼트(FOM) 회장 등과 담소를 나눴다.

허동수 GS 칼텍스 회장, 윤석경 SK건설 부회장 등도 경주장을 찾았고 정준양 포스코회장은 23일 예선전에 모습을 보였다. 최영태 SK건설 부사장, 윤석경 SK건설 부회장 등도 경주장을 찾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첫 공개, 피트 레인은 어떤 곳

'패스' 없이는 출입 금지…세계 첫 일반에 개방

F1 코리아 그랑프리에서는 패독클럽 못지않게 피트 레인(Pit Lane)이라는 구역이 관심을 끌었다. 피트 레인은 메인 그랜드스탠드 건너편에 자리잡은 VIP관람석인 패독과 F1팀의 차량 보관과 정비·점검을 하는 피트, 피트빌딩, 미디어센터 사이의 공간으로 FIA(국제자동차연맹)가 발행하는 '패스'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따라서 이곳에는 드라이버와 F1팀 크루, FOM, 국내외 취재진 등 3000여명만 출입이 가능하고 대다수가 외국인들이다.

이곳에서는 F1 드라이버가 주행을 마친 뒤 취재진을 위한 인터뷰 등이 이뤄지고 주행 뒤 휴식을 위해 피트와 피트빌딩 사이를 오가는 스타 드라이버들을 만날 수도 있다.

예선전이 열린 23일에는 60년 F1 역사장 처음으로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방됐다. '피트 레인 워크'(Pit Lane Walk)라고 명명된 이 행사는 피트 레인을 직접 걸어보는 것으로, 메인 그랜드스탠드 전일권 소지자에게 2시간 가량 개방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바이블칼리지 신(편)입생 추가 모집
GWANGJU BIBLE COLLEGE &THEOLOGICAL SEMINARY

교 수 진

NO	교수명	과목	경력 및 현직
1	이환수 (이사장)	철학	미국 일리노이대학졸업, 5.18북미주대표, TX한인회장&상공회의소 회장, 한미인권연구소장, 광주바이블칼리지 이사장, 세린사회교육원 대표
2	최정만 학장	신약/선교학	서울대졸업, 미국Fuller대(석,박사), 이화여대, 총신대, 숭실대, 고신대강사, 광신대교수역임, 한국복음주의선교학회장, 한국신학자 최우수학술대상수상
3	채영애	실천신학	미국미시건대학교(학사), 영국브리스톨대학교(석사), 미국존합킨스대학교(석사), 미국콜럼비아대학교(Ph.D), 미국쥴리안센터(연구원), 미국풀러신학대학원(연구원), 총신대학교 신교대학원(교수), JDI대표
4	윤영혁	조직/신학	총신대학교(M.Div.), 미SouthWestern대학교(Th.M), Regent대학교 조직신학(Th.D)
5	김명호	구약학	전남대학교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M.Div.), 전남대학교강사, 이스라엘히브리대학교 고대근동어(Ph.D), 광신대학교구약학교수역임,
6	전원호	신약학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M.Div), 화란깜펀신학대학(박사과정), 독일브레멘한인교회 담임, 벨기에브뤼셀한인교회, (현)광주은광교회 담임
7	조태익 (교목실장)	구약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현) 담양읍교회 담임
8	임 영	선교/영어	조선대학교 (영문학 학사, 석사, 박사) 선교총회(M.Div), 조선대, 동신대, 호신대 출강. 광주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세린사회교육원부설 국제어학원장
9	김응렬	실천신학	한국성서대학교,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미국ITS 목회학(박사과정), 한국사회교육원 교수,(현)세계복음사역원원장, 한국사회교육원 중앙COT강력치유훈련 원장, (현)남양주 푸른초장교회 담임목사
10	고경태	조직신학	총신대신대원(M.Div.)총신대학교(조직신학 Ph.D)취득, (현)주님의교회 담임
11	신동구	실천신학	개신대학원대학교(M.Div., Th.M)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Th.M), 예루살렘성서대학(Th.D), 백석대학교(Th.D), (현)주님의교회 담임
12	김봉진	윤리학	호남신학대학교, 장로회신대원(M. Div.), 호남신대(Th.M), 장신대대학원(Th.D)(현)담양개동교회 담임
13	손순용	사회복지학	전남대학공과대학, 경영대학원(인사관리) 동신대학교사회복지학박사, 전남도립대학교수
14	정현필 (연구처장)	창조과학	한국항공대학교항공공학박사, 조선이공대학교수, 창조과학회이사
15	강대영	실천신학	전남대학교졸, 개신대학원대학교(M.Div.), 미국 국제신학대학교(Th.D.), (현)월송교회 담임
16	최사채	실천신학	개신원대학교(M.Div.), (현)영광엽산제일교회 담임
17	김원식	교회 음악	전남대학교음악학과, 미국워싱턴대학교졸, (현)호신대학교강사
18	이길수	부흥 신학	감리교신학대학원졸업. 예수전도단(YWAM)DTS훈련강사, 새물결선교회부회장, 강사, (현)광주예향교회 담임
19	진장환	기독교 교육	개신원(M.Div.), 미 I.T.S 목회학 박사학위 과정, 서울경기신학교수

Th.M.(신학석사)과정 개설

1년에 최단기 학위과정 완성 3개월 단위 한 학기에 8학점(전공필수 4학점, 전공선택 4학점) 이수하면 3학기에 졸업이수학점을 마치고 3개월간 논문완성해서 12개월에 학위 완성함.
최고의 교수진 선교, 치유상담, 구약, 고대근동어 분야에서는 한국최고의 교수진.
학비 저렴 타 대학 학비의 1/2 내지 1/3
진로 보장 ① 이 과정에 입학자는 100% T/A(교육조교) 자격증을 수여하고 최대 6회까지 지도교수의 전공강의 1/2을 현장강의 함.
② 우수졸업생 해외 Ph. D. 과정 유학을 보장하고 졸업생 전원 학부강의를 맡을 수 있는 기회부여.
③ 타 대학 출강 적극 추천
④ 수업시간:2주1회(학생편에서 시간이 있을 때 수업시간 자유)
모집 안내 10명까지 인원 제한. 지원 분야 (선교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입학 문의 학장 직접상담 ☎ 010-7413-1215, 061) 381-0000,1365

세린사회 교육원
• 웃음 치료(월 5만원) • 텝스 영어(월 10만원)
• 영어 성경(월 10만원) • 워십 찬양리더자 교육(월 7만원)

학부 및 신대원(M.Div)과정

1.국내신학교 중 최고의 시설, 최적의 교육환경
- 300명 수용 생활관, 체육관, 채플(예배당), 식당, 도서관, 교수연구실, 개인지도실 각종 연구소, 수영장, 산책로
2. 호남 최고 수준의 교수진 - 선교, 치유, 상담, 구약, 고대근동어 분야에서는 한국최고의 교수진
3. 최 단기 학위과정 완성 - 대학 학부는 2년 대학원은 1년에 졸업
4. 대 교단 총회인준신학교 - 졸업생 전원 100% 목사안수, 선교사파송(책임진로지도)
5. Venture Spirit
- 전문성과 은사 그리고 Venture Spirit 를 가진 전문가(교수, 목사, 선교사)로 하여금 국내 또는 해외 선교지역에 교회를 개척케 한 후 그곳에 GBC졸업생들을 심어준다.
6. 특수지역, 특수교회를 위한 맞춤형 신학교육
- 국내 도시 목회, 성목회 산골목회, 농어촌목회, 해외 선교별로 중국선교, 몽골선교, 중앙아시아 선교, 일본선교, 베트남선교, 캄보디아선교, 태국선교, 인도선교, 파키스탄선교, 중동선교..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지역 복음 사역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수교육과 훈련실시.
7.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학비
- 전교생 100%에게 장학 혜택이 주어지고 학생 본인 부담은 최소화
8. 해외교회 인턴십 제도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 해외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해외 자매교회에 단기 인턴쉽을 보낸다. (단기해외 현장 학습 및 실습)
9. 해외 대학들과 자매관계를 맺고 매년 심포지엄 포럼, 선교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10. 복수 학위제 실시
- 모든 학위 과정의 절반은 국내 GBC에서, 나머지 절반은 해외 자매 학교에서 이수하고 학위는 양국에서 각각 준다. (한 과정 두개의 학위)

뜨거운 영성과 날카로운 지성의 조화
광주바이블칼리지
Gwangju College &Theological Seminary
http://www.gjbc.kr
전남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 산 72번지

평생교육의 1번지
세린사회교육원
후 원 : Chemolee Lab, Corp.(U.S.A)
TEL. 061) 381-1365/0000
FAX. 061) 381-1367